

유럽의 家電製品 市場 現況

1. VTR

서독의 VTR 판매대수는 각기관에서 여러가지 숫자가 공표되고 있으나 종합해보면 85년 150만대, 86년에 180만대 그리고 지난해에는 190만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작년에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개최되어 VTR이나 TV 수요에 박차가 가해졌으나 올해에는 서울올림픽과 유럽축구선수권대회가 있다. 또한 서독의 위성직접방송이 올봄에 시작되고 불란서에서도 BS 방송이 연내에 시작되는 등 유럽의 가전제품시장은 TV, VTR 판매 확대요인을 고루 갖추고 있다.

주요 공급 메이커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디오 기기의 서울올림픽 공식스폰서인 파나소닉은 작년 가을부터 하이파이 VTR「NV-D80EG」나 「H75EG」를 서독시장에 투입했다. 또한 캠코더도 「MC10」이 올해 주력기종으로서 철저한 고부가가치 제품 추구정책을 취하고 있다.

히다찌도 거치형 VTR에서는 앞으로 디지털 하이파이형의 판매가 주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VHS 등 고부가가치제품이 주류가 될 것으로 판단, 가격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바, 샤프, 산요, JVC 등도 VTR에서는 고화질화,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소니는 무비를 CD 플레이어와 함께 서독에서 성장성이 높은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8mm 포맷의 웨어는 올해 60%를 넘어서서 VHS-C보다 웨어면에서 우위에 서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소니도 지난해 VPS(Video Program System) 기능부 거치형「EV-S 650PS」나 8mm 무비「CCD-V90E」의 판매를 개시 올해의 비디오 주력제품으로 육성할 방침.

서독의 캠코더 시장은 지난해 19만대. 86년보다 50% 가까운 신장을 보였다. 아이와, 캐논, 교세라 등 일본세 외에 필립스, 그룬디히, 브라우퓌크트, 시멘스 등도 일본 메이커로부터 공급을 받아 캠코더 시장에서 일본세와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도 경쟁은 과열상태로서 가격유지가 과제가 될 것 같다.

한편 지난해의 유럽VTR 시장에서의 브랜드별 웨어는 다음과 같다.

필립스·그룬디히 : 15%, 톰슨·웨어슨 : 13%, 파나소닉 : 9%, 히다찌 : 7%, JVC : 5%, 기타 : 51%

2. Color TV

지난해 서독 컬러 TV 시장 판매대수는 350만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시장규모 150억 마르크(86년)인 서독 가전시장의 주종상품이다.

지난해의 유럽시장 컬러 TV 판매가 전년비 미증에 그쳐 VTR과 마찬가지로 서울 올림픽과 축구유럽선수권 등 빅 이벤트로 판매증대가 기대되고 있으며 대화면과 고화질화가 추구될 전망이다.

앞으로 DBS 방송개시가 TV시장을 어떻게 자극할 것인지 주목거리인데 다만 DBS의 TV 방식으로서 서독, 불란서 모두 D2MAC를 채택

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PAL방식(불란서는 SECAM)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바꾸는데 따른 필요한 부품(테코더 칩)의 양산이 올해 연초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DBS대응 수상기가 점포에 출현하는 것은 여름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TV화면의 대형화는 서독시장에서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서독의 Color TV매상의 60% 이상이 대형기라는 샤프는 30형이상 기종판매를 강화함과 함께 일거에 프로젝션 TV까지도 시장에 투입할 시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히다찌도 28, 25, 21형의 Flat Square 판 채용기종이 올해의 주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밖에 도시바, 소니, 산요, JVC, 후지쓰 제네랄도 대형기로 승부를 가릴 태세. 이런 가운데 파나소닉은 여전히 소형에서 대형기까지의 라인업을 강화, 섬세한 마케팅을 벌여나갈 방침.

또한 필립스와 톰슨으로부터 TV의 OEM공급을 받아 파이오니아는 TV를 AV제품의 중핵으로 생각하면서도 TV판매대수만을 추구할 뜻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액정 TV도 시장에 출현하고 있는데 제작년에 파나소닉이 선두를 끊은후 필립스나 SABA가 작년 8월의 베를린 쇼에서 액정 TV를 출품, 선명한 화상을 PR하여 시장참여 의욕을 내세웠다. 영국에서는 웨저슨이 작년 가을부터 판매를 개시했다. 또한 히다찌에서는 액정TV를 비디오 무비용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시장참여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Color TV는 소형기 부분의 가격체제 붕괴가 돌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 대만 등 NICS 제품의 시장공세에 따른 것인데 이에 대항하는 일본계 메이커들은 대형기 및 고부가가치제품에 활로를 찾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럽 TV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필립스(그룬디히), 톰슨(웨저슨)그룹 등 양거인이 Color TV 웨어의 근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의 유럽 Color TV시장에서의 브랜드별 웨어는 다음과 같다.

필립스·그룬디히 : 30%, 톰슨·웨저슨 : 17%
ITT : 4%, 소니 : 4%, 히다찌 : 3%, 기타 : 37%

3. Digital Audio

CD 플레이어의 가격경쟁도 격심해지고 있다. 수년전까지도 1,000마르크 이상이던 포터블 기종이 재작년에는 400마르크 작년에는 일부이긴하나 200마르크 내렸다. 수량은 늘어도 금액 면에서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CD 플레이어의 서독시장은 작년의 경우 백만대선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주로 팔리고 있는 것은 값이 싼 포터블 기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번들들은 가격경쟁이 덜한 중고급기종에서 활로를 찾지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파이오니아는 CD 6매 연속연주 가능한 멀티 플레이어 히다찌도 하이파이 CD 컴비베이션인 「OPUS 450」, 데논은 「DCD-3300」을 올해 중점기종으로 내놓고 있다. 파나소닉도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고급기종 지향을 표방하고 있다. 각사모두 시스템 탑재 플레이어나 CD 체인저, 리모콘 등 성능과 기능을 확장한 단·복합상품을 올해 주력기종으로 삼을 것이 확실하다. 또한 차재용 분야에서는 시장의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그밖에 CDV의 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소프트의 공급환경에 따라 판매강화를 노리거나 시장참여를 준비중인 곳도 눈에 띄고 있다. 또한 앞으로 CD 싱글이 판매되기 시작하면 CD플레이어 판매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되리라는 기대와 함께 올해 CD 플레이어 시장은 고급화와 보급기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소니의 DAT 판매개시를 시작으로 JVC, 아이와, 그룬디히 등 4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가격도 대당 3,500마르크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무역마찰동향과 수요동향을 보면서 대처해 나가자는 것이 일반적인 움직임

직임이다. 지난번 소니는 미국의 포드와 DAT의 OEM 공급을 계약한 바 있는데 차재용 DAT는 재생전용이기 때문에 레코드 업계와의 마찰도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유럽시장에서도 차재용 DAT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메이커도 생길 전망이다. 필립스도 아직 DAT 판매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레코드 업계와의 문제가 결론이 나올때까지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4. 電子렌지

유럽은 전반적으로 전자렌지의 보급이 낮아 보급률은 영국 20%, 서독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잠재적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유럽 전체의 올해 수요는 400만대를 넘길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유럽에서는 아직도 전자렌지가 부엌의 상비품이라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 점포에서의 데모 등 판촉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데모 등이 차츰 결실을 보이고 조리, 가열, 해동 등 기능이 홍보되어 최근에는 전자렌지의 편리함이 겨우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는 상태이다.

유럽 전자렌지 시장에서도 현지 메이커와 일본, 한국세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AEG, 필립스, 톰슨, 미래, 일렉트로럭스, 크레이더 등의 현지 유력 브랜드이고 일본계의 파나소닉, 도시바, 히다찌, 산요, 샤프, 브라더와 한국의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이 각축하고 있는데 웨어면에서는 현지세보다 한국 일본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계 기업의 시장참여로 가격경쟁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지난해

초 덤핑조사가 시작되어 현재 EC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유럽의 전자렌지 시장 경향으로서 수요는 확실히 늘어나고 있으나 다른 AV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격인하가 격화되고 있으며 제품도 단기능의 저가품과 고급기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5. 現地生産 現況

유럽시장의 외국계 메이커들은 현재 EC의 덤핑혐의 공세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초 한국산 전자렌지가 덤핑 제소되었고 CD 플레이어도 한·일 메이커측의 조사서 제출이 끝나 EC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재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VTR도 한국제와 일본제 일부, TV는 한국제가 조사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각사는 지난해 연이어 유럽 현지생산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지난해 새로이 VTR 현지생산에 들어간 곳은 금성사와 도시바(이상 서독), 그리고 마쓰시다(불란서·스페인), 니혼덴끼와 후나이덴끼(이상 영국) 등이 있다.

또한 TV는 금성사(서독), CD플레이어는 소니(서독)가 작년에 생산을 개시하였다. 불란서에서는 지금까지 아이와, 아까이덴끼가 CD플레이어를 생산해오고 있어 그야말로 CD플레이어 생산기지화한 느낌을 주고 있다. 전자렌지의 현지생산도 지난해 신규 참여한 마쓰시다덴끼, 히다찌, 브라더(이상 영국)와 불란서에 서의 톰슨 도시바 합작생산 등 출을 잇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마쓰시다덴끼는 올해부터 영국에서 전자렌지의 심장부인 마그네트론 생산을 개시할 계획이고 다른 메이커들에게도 공급할 계획이다.